

글 _ 전홍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배워서 남 주는 세상을 위하여



조 직과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처리하는 인내력, 풍부한 창의성, 적절한 모험심, 도덕성, 유머감각, 확신, 유연성, 신속성, 계획성... 마치 영화 '부르스 올 마이티'에 등장하는 신(God)을 지칭하는 듯한 이런 덕목들이 기업경영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실현해 가는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

기업가정신의 쇠퇴, 모든 이들의 근심걱정

지난 시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데에는 가난을 벗어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목표와 이에 도전했던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표는 70년대 72.3에서 80년대 22, 90년대 9에 이어 2000년대는 6으로 낮아지는 등 어려웠던 그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5인 이상의 제조업·광업 사업체 수 증가율과 설비투자액 증가율, 민간연구개발비 증가율의 3가지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평가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기업가정신이 낮아진 이유로 우리 사회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 증가, 한국의 노동운동 관행 등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함께 기업인 스스로 도전과 창의정신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역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 희생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것에 대해 사회 전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으며, 활력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산업 정문술 대표의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었던'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정신, 진정한 시민정신의 상징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가정신

정대표가 벤처1세대로 피땀 흘려 성장시킨 회사를 종업원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 정말 아깝지 않으세요"라는 손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사회가 지금껏 자신을 먹고 입히고 가르쳐 왔으므로 떠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하며, 보잘 것 없는 자신에게 기업을 하게 해주고, 보람도 함께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인젠가는 보은을 생각했다는 정문술 대표의 회고야말로 인간적인 기업가정신의 표상으로 손색이 없다.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던 그의 퇴임사처럼 사람의 순결이 묻어 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운 환경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쉽지는 도전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마침내 기업을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는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의 쇠퇴가 최근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다시 한번 창의와 도전의 기업가정신이 우리 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며 벤처기업의 대부, 정문술 대표의 '배워서 남 주는, 그리고 벌어서 남 주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벤처기업인들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